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13호 (2024.07.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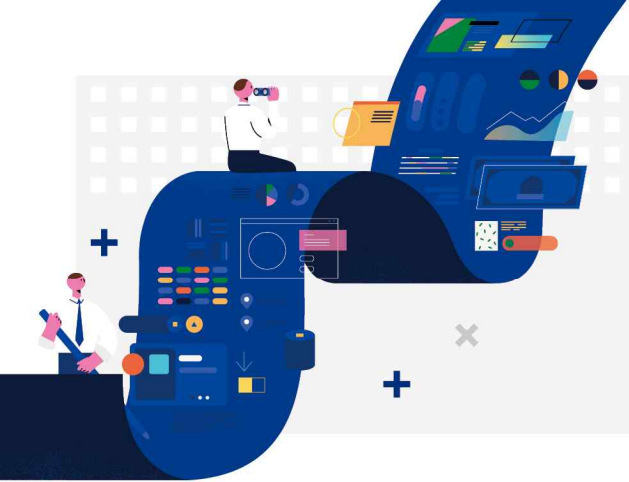
■ 이 슈

(경기) 인천소비지수를 활용한
인천시 업종별 소비 동향

■ 주요 산업 현황

(제조) 자동차산업 시장 동향

■ 국내 정책동향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13호 (2024.07.05)

Cotents

I. 이 슈

(경기) 인천소비지수를 활용한 인천시 업종별 소비 동향 1

II. 주요 산업 현황

(제조) 자동차산업 시장 동향 7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10

III. 국내 정책동향

(주거) 국토부, '25년까지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 공급 계획 11

(금융) 부동산시장 안정·선진화를 위해 리츠(REITs) 활성화 추진 11

(기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실증사업 부지 선정 공고 시작 12

(산업) 삼성전자,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기술나눔 공고 12

(복지) 주민번호 없어도 복지급여 수급 가능하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13

(교육) EBS,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무료 화상 튜터링' 서비스 운영 13

(기술) '25년 주요 R&D 과제에 예산 24조 8,000억 원 투자 14

(금융) 정책·민간 서민금융상품 통합 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운영 시작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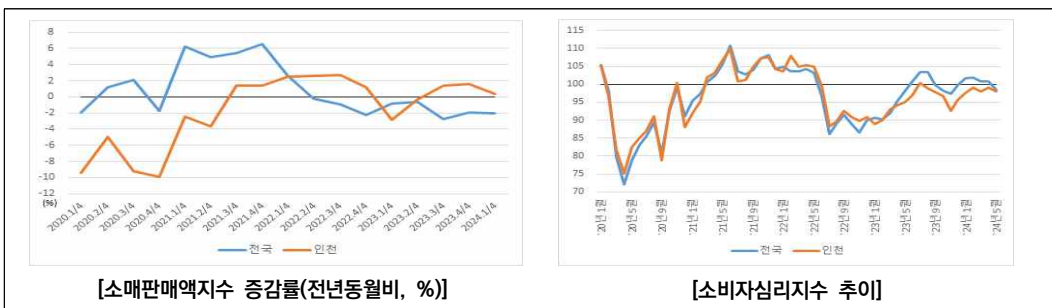
연구진

최태림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민규량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상민경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김종원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경기 >> 인천소비지수를 활용한 인천시 업종별 소비 동향 +

#지역 소비 #인천소비지수 #업종별 소비 #소비회복세

- 최근 국내 소비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으나 지역의 월별 소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부족한 상황¹⁾으로, 지역별 소비 현황을 파악하고 소비 촉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의 개발·운영이 필요
 - 우리나라는 '22년부터 지속된 고금리로 인해 약화된 가계 소비 여력에 따라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며 경기 회복세가 둔화하는 모습¹⁾을 보이고 있으나, 인천시의 경우 '23년 하반기부터 소매판매액지수가 증가세
 - 소매판매액지수의 경우 전국은 '22년 2분기 이후 전년동월비 감소세가 유지되는 반면, 인천시는 '23년 상반기에 전년동월비 감소하였으나 하반기부터는 1% 내외의 증가율을 보이며 소비 부진이 다소 완화
 - 다만 소비자심리지수의 경우 '24년 5월 기준 전국(98.4)과 인천(97.9) 모두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는데, 인천의 경우 '23년 들어 전국보다 대체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소비경기에 대한 체감 수준에 차이
 - 지역내총생산(GRDP)에 대한 소비의 기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소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월별 지표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소비자심리지수 등으로 한정되어 종합적인 소비 현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
 - '22년 기준 인천시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민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1.4%로, 통계청에서 시도별 민간소비지출의 추계를 시작한 '95년 이래로 꾸준히 50% 이상을 상회²⁾
 - 이에 본 고에서는 추진단에서 개발한 인천소비지수를 활용해 인천시의 전반적인 소비 동향³⁾과 업종별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인천시의 소비 동향 판단에 대한 시의성과 포괄성을 제고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소매판매액지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소비자심리지수' 참고 및 재구성
 [그림 1] 전국 및 인천시 소비 관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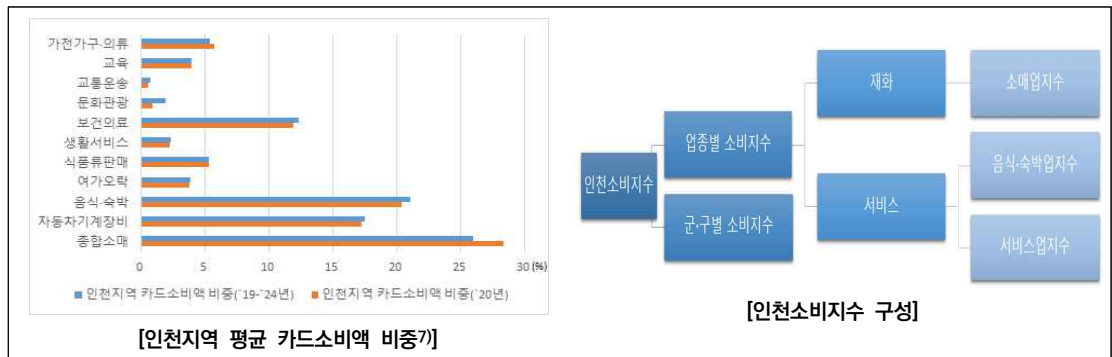
1) KDI(2024.06)에 따르면 최근 국내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 추세로 경기가 다소 개선되었으나, 고금리로 인해 내수는 더딘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
 2)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지역소득」 “시도별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참고.
 3)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에서는 재화와 서비스를 포괄하여 세부 소비 업종을 구성하고, 군·구별 소비지수를 작성하여 업종별·지역별 소비 특성을 검토.

-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은 지역 월별 소비활동 정보의 적시 제공을 위해 인천시 관내 카드 결제 데이터⁴⁾를 활용하여 ‘인천소비지수’를 개발
 - ‘인천소비지수’는 지역의 월별 소비의 전반적인 동향 및 세부 특성 등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인천 관내 소비 업종을 11개로 구분하여 업종별 경기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지수 개발을 위해 '19년 1월~'24년 5월까지의 인천 관내 신한카드 가맹점에서 결제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⁵⁾
 - 소비지수는 '20년의 월평균 카드 소비액을 기준시점 소비액으로 구분하고, 재화 및 서비스 관련 11개 소비 업종에 대해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카드 소비액 비중을 가중평균⁶⁾하여 작성

[표 1] ‘인천소비지수’ 소비 업종 구분

업종분류	주요 세부 업종
가전·가구·의류	• 가전용품, 가구, 정보통신기기, 남·여 기성복, 내·외류판매업, 생활잡화, 건설·건축자재 등
교육	• 교육기자재, 독서실, 용역서비스, 유치원, 일반전문학원 자동차학원 등
교통·운송	• 견인 서비스, 고속버스, 렌터카, 보관창고업, 여객선, 철도, 택시, 항공사, 화물운송업 등
문화관광	• 공연장, 극장, 관광여행사, 면세점, 수련원·체험장, 수족관, 온천장, 종합레저타운 등
보건의료	• 개인병원, 보건소, 약국, 응급실 운영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의원한약방 등
생활 서비스	• 각종 수리점, 법률·사무, 부동산 중개, 결혼 서비스, 이벤트, 보험, 결제 대행, 통신 요금 등
식품류 판매	• 농가공산품, 농수산물, 미곡상, 정육점, 청과물 등
여가·오락	• 문구용품, 서적, 악기, 운동경기·레저용품, 자전거, PC방, 노래방, 스포츠시설 등
음식·숙박	• 호텔, 특급호텔, 일반 대중음식, 제과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자동차·기계장비	• LPG 가스, 기계장비입대업, 수입 자동차, 신차 판매, 오토바이, 주유소, 주차장, 중고차 판매 등
종합소매	• 대형마트, 백화점, 농·수·축협, 슈퍼, 편의점, 중고품 판매점, 화장품, 사무기기, 전자상거래 등

* 자료 : 인천연구원 「인천 소비업종 동향」 참고 및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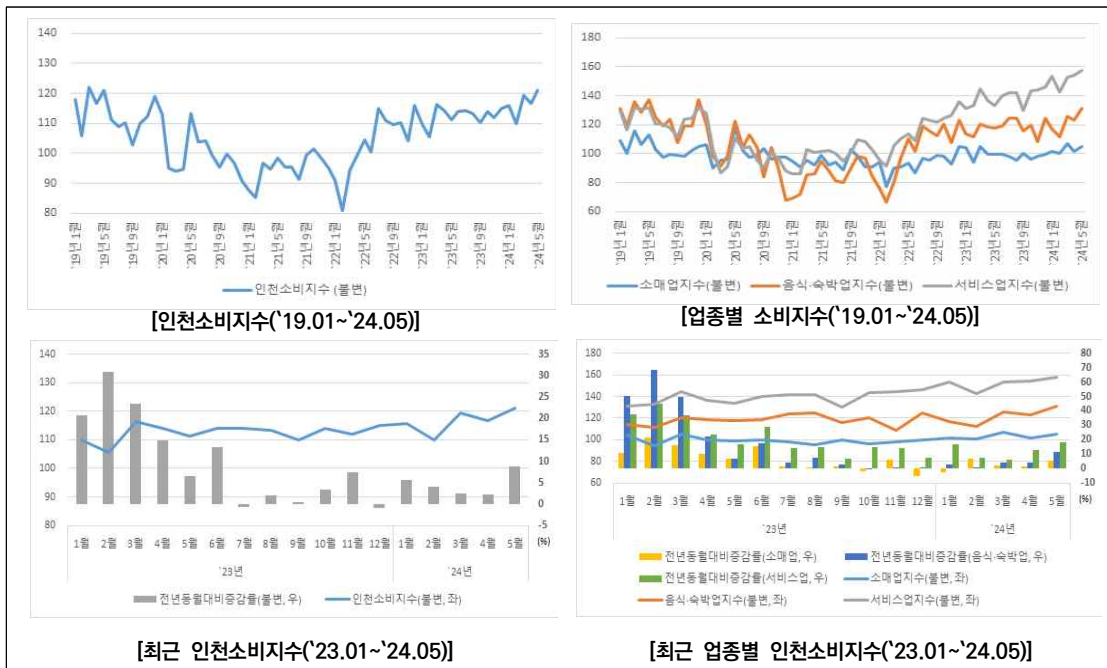


* 자료 : 신한카드 데이터 참고 및 재구성

[그림 2] 인천시 평균 카드소비액 비중 및 인천소비지수 구성

- 4) 한국은행(2022.05)에 따른 '21년 기준 소비 결제 관련 지급 수단별 이용 금액 비중은 신용카드와 체크·직불카드가 각각 49.5%, 16.9%를 차지하여, 카드 결제 데이터는 결제 수단으로 대표성이 존재.
- 5) 카드 이용 금액은 신한카드 시장점유율을 고려하여 전체 카드 추정값을 활용하였으며, 법인카드 이용건은 활용데이터 범위에서 제외.
- 6) 가중치는 통계청 '소매판매액지수'의 작성 방법을 따라 '20년 평균 업종별 카드 소비액 비중을 사용하였으며, 불변지수의 경우 업종별 소비자물가지수를 디스플레이터로 활용하여 계산.
- 7) '20년의 업종별 카드 소비액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데이터 전체 기간('19.01~'24.05)의 업종별 카드 소비액 비중과 유사한 추이를 보여, 소비지수 산출의 가중치로 활용하기 적절한 것으로 판단.

- 인천소비지수에 따르면 인천지역 소비는 '22년 1월 반등한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업 관련 소비 증가가 전체 소비회복세를 견인⁸⁾
 - '23년 한 해 동안 인천소비지수는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며 110~120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4년 들어 지수가 전년동월대비 증가를 지속하며 상승하는 추세
 - '23년 말 기준 인천소비지수는 직전년도인 '22년 말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24년 5월에는 전년동월대비 8.8%, '23년 12월(115.0) 대비 4.6% 증가한 121.2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120을 상회
 - 인천소비지수는 '23년 월평균 10.1% 증가세를 보였으나 '24년 들어 월평균 4.6%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 업종별로 살펴보면 소매업은 타 업종에 비해 소비 변동성이 적고 코로나19 이후의 회복이 부진한 상황이며,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은 '22년 2월을 기점으로 소비가 반등하는 것으로 보이나 회복 속도에는 차이⁹⁾
 - 업종별 인천소비지수의 '24년 기준 월평균 전년동월비 증감률은 △서비스업(12.3%) △음식·숙박업(4.5%) △소매업(2.7%) 순으로, 서비스업 관련 소비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뚜렷한 모습
 - 코로나19 이전에는 음식·숙박업 및 서비스업의 소비가 동조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2년 2월 이후 서비스업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음식·숙박업 부문은 반등 이후 보합세를 보이며 비동조 현상이 점차 확대



* 주 : 기준시점(2020년)에 대한 가중치를 고정하는 라스파이레스식을 이용하여 지수를 계산 (2020=100)

[그림 3] 인천소비지수 변화 추이

- 8) 인천소비지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했던 △'20년 2월 △'20년 12월 △'21년 7월 △'21년 12월 △'22년 2월 △'22년 3월에 대폭 하락한 바 있으며, '21년 11월 이후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 시행에 따라 인천소비지수도 반등.
- 9) 인천소비지수는 재화 소비 부문에 해당하는 소매업지수와 서비스 소비 부문에 해당하는 음식·숙박업지수 및 서비스업지수의 3가지로 구분. 이때 소매업지수는 가전·가구·의류, 식품류 판매, 종합소매 업종의 가중평균을 활용하였으며, 서비스업지수는 음식·숙박을 제외한 교육, 교통·운송, 문화관광, 보건의료, 생활 서비스, 여가·오락 업종의 가중평균 값을 활용.

- 인천소비지수 변동에 대한 업종별 기여도¹⁰⁾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에는 △음식·숙박 △문화관광 △종합소매 등 업종의 소비 감소 영향이 뚜렷하였으며, 소비가 회복세로 전환된 이후인 '23년부터는 △보건의료 △문화관광 △교육 등 서비스 관련 업종의 소비 증가가 지수 변동의 큰 비중을 차지
 - ('20~'22년) 코로나19 기간에는 △음식·숙박 △문화관광 △종합소매 업종의 소비지수 감소 폭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등이 시작된 '22년에는 △음식·숙박 △자동차·기계장비 등의 업종에서 상승세
 - '20년 인천소비지수는 월평균 전년동월대비 11.46% 감소하였는데, '식품류 판매'를 제외한 모든 업종의 지수 감소 기여도는 음수(-)로 △음식·숙박(-4.5%) △문화관광(-3.3%) △종합소매(-1.1%) 순
 - 코로나19 이후인 '22년의 소비지수 변동에 대한 업종별 월평균 기여도는 '종합소매'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양수(+)로 나타났으며, 지수 증가에는 △음식·숙박(3.6%) △자동차·기계장비(1.4%) △교육(1.0%) 순으로 기여
 - ('23년) 국내·외 여행의 증가 및 지역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음식·숙박(3.5%) △보건의료(2.5%) △문화관광(1.3%) 등 서비스 관련 업종의 소비 증가가 인천소비지수의 상승을 견인
 - ('24년) △보건의료 △음식·숙박 △종합소매 등의 업종이 전체 소비지수 증가에 높은 기여도를 보이고 있으며, △가전·가구·의류 △교통·운송 △자동차·기계장비 등의 기여도는 감소하나 전반적으로 완만한 증가율을 유지
 - '24년 1월~5월의 월평균 소비지수 증감률은 3.6%로, 업종별 기여도는 △보건의료(1.7%) △종합소매(0.8%) △음식·숙박(0.7%) △교육(0.2%) 순

[표 2] 인천소비지수에 대한 업종별 기여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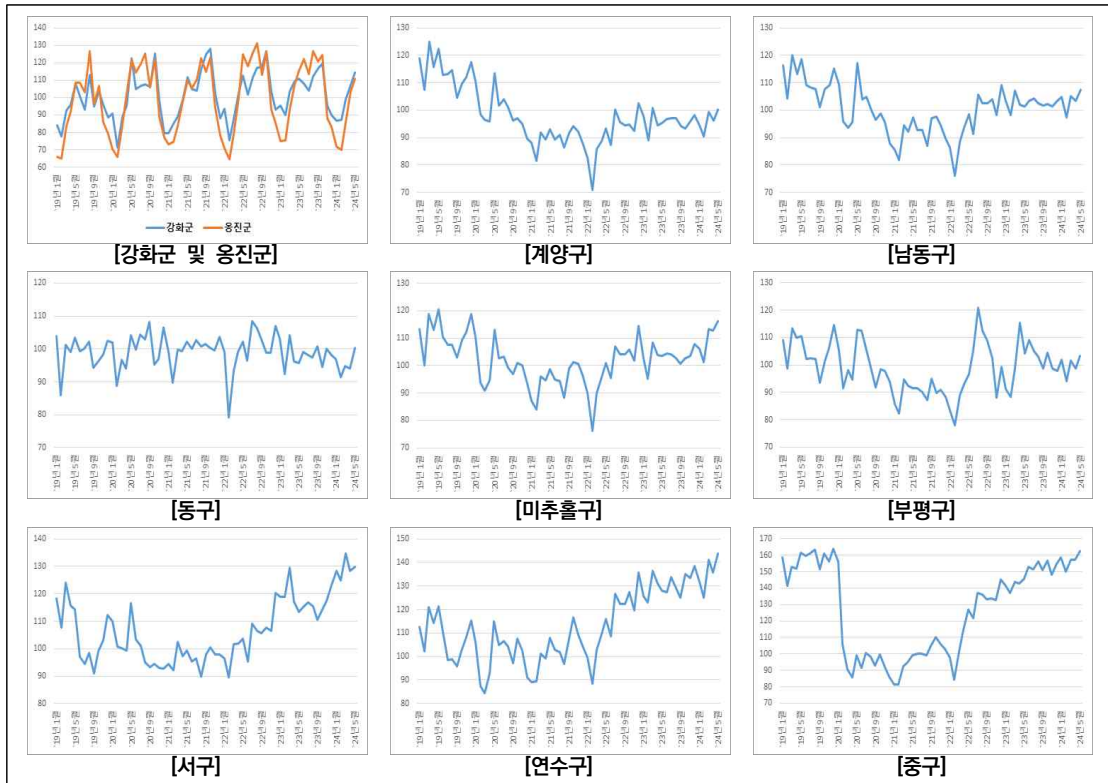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01	'24.02	'24.03	'24.04	'24.05
가전·가구·의류	-0.5	-0.3	0.0	0.7	0.6	-0.9	-0.2	-0.4	0.3
교육	-0.4	0.2	1.0	0.9	0.5	-0.1	-0.2	0.5	0.2
교통·운송	-0.1	0.1	0.2	0.1	0.0	-0.2	0.2	0.1	-0.2
문화관광	-3.3	-0.4	0.8	1.3	0.6	0.8	0.6	0.5	0.1
보건의료	-0.3	0.3	0.9	2.5	3.3	1.5	0.9	2.4	0.1
생활 서비스	-0.3	-0.1	0.2	0.3	0.2	0.1	0.1	0.1	0.1
식품류 판매	0.1	0.1	0.1	0.5	-1.1	1.3	-0.2	0.1	0.4
여가·오락	-0.5	0.0	0.6	0.4	0.0	-0.1	0.1	0.1	0.4
음식·숙박	-4.5	-2.8	3.6	3.5	0.5	0.1	0.9	0.8	1.4
자동차·기계장비	-0.6	0.3	1.4	-1.4	1.3	-0.6	-0.7	-2.6	0.4
종합소매	-1.1	-2.0	-0.5	1.3	-0.5	2.0	0.9	0.9	0.6
소비지수 증감률	-11.5	-4.6	8.4	10.1	5.5	4.0	2.5	2.3	3.8

* 주1 : 업종별 기여도는 불변지수의 전년동월대비 값을 이용해 산출

2 : '20~'23년의 기여도는 연도별 월 평균값을 활용하였으며, 업종별 기여도의 합은 소비지수 증감률과 동일

10) 서울연구원(2024.06)의 업종별 기여도 계산 방식을 참고하여, '업종별 기여도 = 업종별 가중치 × (△하위업종 / △소비지수) × 소비지수 증감률'로 산출.

- 군·구별 소비지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인천시는 원도심-신도심 간의 소비 불균형이 존재하며, '22년 코로나19 이후 신도심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관내 소비가 '24년에는 신도심 이외 지역도 소폭 개선되는 모습
 -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연수구 △중구¹¹⁾ 등은 코로나19 일상회복이 시작된 '22년 1월 이후 소비가 지속적인 상승세
 - 특히 인천국제공항이 자리한 중구의 경우 코로나19 기간에 지역 내 소비 급감을 경험했으나, 일상회복 시기('22년 1월) 이후 빠른 속도로 이전의 수준을 회복
 - 인천시는 고부가가치 산업 및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 등으로 인해 △서구 △연수구 △중구를 중심으로 한 인구 유입이 지속¹²⁾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최근 관련 지역의 소비지수 상승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
 - 인천시의 원도심인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등은 '24년 들어 소비지수가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나, 대체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여전히 소비 회복이 더딘 상황
 - 한편 농어업·관광업 위주의 산업구조인 강화군 및 옹진군은 타지역과 달리 △식품류 판매 △여가오락 △음식·숙박 △종합소매 등이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업종 대비 높아 지역 소비지수의 계절성이 뚜렷



* 주 : 그래프 작성에는 불변지수를 활용하였으며, 기준시점(2020년)에 대한 가중치를 고정하는 라스파이레스식을 이용하여 지수를 계산

[그림 4] 인천시 군·구별 인천소비지수

11) 한국은행(2024.01)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바이오 및 첨단지식서비스 중심의 송도국제도시(연수구), 인천국제공항 기반 물류·관광 기능의 영종국제도시(중구), 금융 및 레저 중심지인 청라국제도시(서구)로 구성되어 서비스업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집적화.
 12)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19년 1월부터 '24년 4월까지 누적 기준 인천시 인구 순유입은 67,248명으로 △서구(85,684명) △연수구(43,953명) △중구(40,775명) △강화군(3,469명) 순으로 증가.

- 인천소비지수는 기존에 발표되던 지역의 소비 통계지표와 달리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모두 포괄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정책담당자에게 지역 소비 동향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의 판단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앞으로 매월 정기 발표될 예정인 인천소비지수는 지역 소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시의성을 제고하고, 정책 입안·결정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
 - 인천소비지수는 다양한 업종을 포괄한 소비 데이터를 통해 지역의 소비트렌드를 분석하고, 업종별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소비 촉진 정책의 수립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
 - 지역 내 소비 관련 정책을 시행한 이후 지수의 변화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향성을 수립하는 등 시 차원의 정책적 대응력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전망

- 인천소비지수를 통해 살펴본 인천지역의 소비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국적인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업종별 소비회복세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 소비 시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소매업 등 회복이 부진한 업종에 대한 소비 촉진 정책의 마련이 필요
 - 정부는 소비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지역경제 및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24년 5월 전국 지역행사와 연계한 '동행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고, 6월에는 '여행 가는 달' 캠페인을 진행하여 국내 관광의 유인을 늘리는 등 소비 진작을 위해 노력
 - 동 대책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지역관광 연계 상품과 결합한 교통비 할인 △지역 여행상품 개발·운영 등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 확보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이 포함
 - 인천시 역시 '24년 들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한류 행사 및 대형 축제를 활성화하고,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2024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마련하는 등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 다만 현재 인천시의 소비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관내 서비스업 특화 업종은 같은 수도권인 서울 및 경기도에 비해 부족¹³⁾하므로, 장기적인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원도심 및 소매업 등 회복이 더딘 지역·업종에 대한 정책 지원책 마련이 요구
 - 인천시는 타수도권 지역과의 연계로 인해 역외소비 유출률이 큰 지역적 특성¹⁴⁾을 가지므로 관내 소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민 소비 패턴의 분석을 통해 다양한 역내소비 촉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

13) 한국은행(2024.01)에 따르면 인천의 업종별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는 △운수·창고업 △공공·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서비스업 △문화·기타서비스업 부문에서 서울과 경기도보다 높게 나타나나,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사업서비스업에서 특화 정도가 낮은 편.

14) 한국은행(2024.01)에 의하면 '22년 인천지역 역외소비 유출률은 37.8%로 17개 시·도중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

제조

자동차산업 시장 동향



- 2024년 5월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4.8% 증가한 65억 달러로 역대 5월 실적 중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생산 및 내수는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¹⁵⁾
 - 5월 국내 자동차 신규 생산량은 37.3만 대로 전년동월 및 전월대비 각각 2.4%, 5.5% 감소하였으나, 글로벌 시장 수요를 바탕으로 2022년 9월부터 30만 대 이상의 생산 실적을 유지
 - 내수 판매량은 내수 경기 부진 및 고금리로 인한 신차 수요 둔화로 인해 전년동월 및 전월대비 각 7.1% 감소, 0.1% 증가한 14.1만 대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비 감소세 지속
 - 2024년 5월 자동차 수출액은 △유럽시장 수요 정상화 △북미지역 성장세 △친환경 신차 수출 호재 등으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4.8% 증가한 64.9억 달러를 기록하여 역대 5월 중 최고 실적을 달성했으며, 수출 대수 역시 전년동월대비 2.9% 증가한 25.4만 대를 기록
 - 다만 지정학적 분쟁이 지속으로 인한 수출입 관련 해상 물류 비용 상승,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의 친환경차에 대응한 각국의 관세 인상 정책 등 대외적인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수출 규모 증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

[표 1] 국내 자동차산업 생산, 내수판매, 수출 추이

(단위 : 대, 억\$, %)

구분	'23.10	'23.11	'23.12	'24.01	'24.02	'24.03	'24.04	'24.05
생산 (증감률)	341,019 (4.1)	370,145 (-2.5)	367,622 (4.0)	358,423 (16.8)	300,459 (-12.5)	365,497 (-10.8)	394,457 (3.2)	372,810 (-2.4)
내수 (증감률)	141,350 (-2.1)	160,476 (2.9)	143,249 (-11.1)	116,152 (-0.4)	115,753 (-21.3)	146,019 (-12.0)	141,110 (-5.5)	141,313 (-7.1)
수출 (증감률)	225,420 (8.1)	245,675 (11.9)	247,295 (7.9)	245,255 (22.1)	198,653 (-10.9)	249,718 (-4.8)	271,147 (9.6)	254,496 (2.9)
수출액 (증감률)	58.8 (19.7)	65.3 (21.0)	63.9 (17.7)	62.1 (24.6)	51.6 (-7.9)	61.7 (-5.4)	67.9 (10.3)	64.9 (4.8)
부품수출액 (증감률)	17.7 (-3.7)	19.3 (3.8)	17.7 (-10.8)	19.1 (10.8)	19.8 (-1.7)	19.1 (-7.2)	19.6 (2.9)	18.4 (-5.3)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자동차산업 동향(2024.03.19)' 참고 및 재구성

* 주 :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률은 전년 동월 대비로 표기

15)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자동차산업 동향(2024.06.20)'.

- **(전국)** 2024년 5월 기준 국내 자동차산업 생산지수는 '23년 3월 이후 등락을 반복하며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2.4% 증가했으나 품목별 수출 경기에 차이
 - **(생산지수)** 전국 자동차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9%, 전월대비 2.8% 감소한 133.9로, 기준치(100)를 크게 웃돌며 생산 경기 호조가 지속
 - 자동차 출하는 생산지수와 같이 전년동월비 4.0% 감소한 반면, 재고지수의 경우 올해 들어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경기 판단에 주의가 필요
 - **(품목별 수출액)** 국내 자동차 관련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2.4% 증가, 전월대비 4.8% 감소한 83.3억 원으로, 승용차, 화물자동차, 전기차 등을 포함하는 완성차 수출의 비중이 약 77.9%를 차지하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
 - 부문별 전년동월대비 수출액 증감률은 △기타 자동차(35.3%) △승용차(6.2%) △자동차부품(-5.3%) △화물차(-8.2%) △전기차(-21.8%) △특장차¹⁶⁾(-41.8%) 순
 - 지난 '23년 11월 이후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며 완성차 부문의 주요 수출 품목 순위가 변동¹⁷⁾

- **(인천)** 2024년 5월 인천지역의 자동차산업 생산지수는 133.9로 지난 2월 시작된 전년동월비 감소세가 다소 둔화하였으며, 수출액 역시 전년동월비 소폭 감소
 - **(생산지수)** 인천의 자동차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5.1% 감소, 전월대비 0.2% 증가한 133.9 수준으로 기준치(100)를 웃돌고 있으나, '24년 2월 이후 전년동월비 감소세
 - **(품목별 수출액)** 인천의 자동차 관련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0.1% 감소, 전월대비 3.4% 증가한 7.1억 원 수준으로, 완성차 수출액이 총수출액의 약 88.2%를 차지하며 자동차 부품수출액의 비중이 점차 감소
 - 인천시 자동차 관련 수출액은 전년동월비 감소가 4개월 연속 지속되는 가운데 감소세가 다소 둔화
 - 부문별 전년동월대비 수출액 증감률은 △화물자동차(16.5%) △특장차(7.0) △승용차(6.1%) △기타 자동차(-13.8%) △자동차부품(-29.9%) △전기차(-51.1%) 순

[표 2] 국내 자동차 산업생산지수 및 증감률

지역	항목	'24.02	'24.03	'24.04 (p)	'24.05 (p)	'23.05	전월비 (%)	전년 동월비 (%)
전국	자동차 제조업	110.1	130.0	137.8	133.9	136.5	-2.8	-1.9
인천	자동차 제조업	117.6	130.8	130.7	130.9	137.9	0.2	-5.1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2020=100)'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산업생산지수 파악에 활용한 항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구분하였으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의 자료를 이용

2 : 생산지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원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 가능

16) 특장차에는 소방차, 탱크로리, 차량운반차, 냉동탑차 등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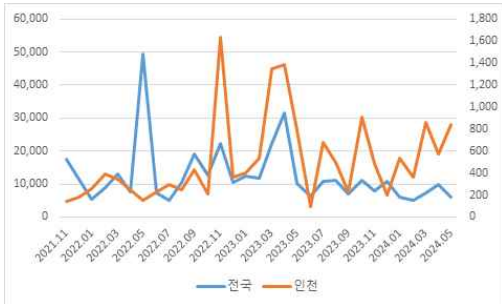
17) '23년 11월 기준 품목별 수출액 순위는 △승용차 △자동차부품 △전기차 △기타 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장차 순이었으나, '24년 5월 현재는 전기차와 기타 자동차의 순위가 변동.



[승용차(MTI7411)]



[화물자동차(MTI7412)]



[특장차(MTI7413)]



[전기차(MTI7414)]



[기타 자동차(MTI7419)]



[자동차 부품(MTI742)]

* 자료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 수출입 통계'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 1 : 수출 금액은 1,00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좌축은 전국 기준, 우축을 인천 기준으로 작성

2 : 2021년까지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승용차로 구분되었으나, 2022년부터 해당 기종이 기타 자동차로 분류되며 전국 및 인천 지표의 변동 확대

[그림 1] 자동차 품목별 수출 동향(2024.05)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2024.05 잠정)

제조업 생산지수	전국						인천					
	생산		출하		재고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반도체	127.4	16.1	112.1	14.9	142.0	-24.1	138.7	16.9	142.5	21.2	164.9	-3.9
자동차	133.9	-1.9	130.8	-4.0	122.3	7.7	130.9	-5.1	121.4	-10.5	142.9	-9.8
기계장비	104.9	-1.7	104.5	-3.7	145.4	-1.6	227.1	57.8	199.3	34.6	182.3	-13.1
바이오-의약	144.3	19.3	145.4	12.9	-	-	233.2	106.6	211.2	46.4	-	-
바이오-화장품	91.2	4.2	95.3	4.2	102.5	-0.6	120.3	14.1	106.7	1.2	104.3	11.8
건설 수주액 (억원, %)	전국						인천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건설	21,077	-34.5	73,586	-32.2			2,213	302.4	6,319			-68.8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의 산업별 통계 참고 및 재구성

* 주 1 : 각 산업의 통계 원자료 참고 시 항목명은 순서대로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건설수주 등

2 : 생산지수는 2020년 기준 원지수를, 건설수주액은 종합건설업체의 건설수주액 경상이가격을 이용해 작성되었으며, 각 지표의 증감은 전년 동월 대비 비율로 표기

3 : 각 자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주거 > 국토부, '25년까지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 공급 계획



#국토교통부

- 국토부는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에 따라 '24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중산층·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
 - 금번 계획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주택 12만 호를 매입하여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전·월세를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으로, 실수요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수도권에 전체 공급 물량의 70% 이상을 배정할 예정
 - LH(신축) 및 HUG(기축) 든든전세주택과 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6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할 예정으로, 매입임대 주택 공모 관련 세부 정보는 LH청약플러스·HUG 안심전세포털 등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구분(만 호)		신축매입		기축매입		LH신축 든든전세		HUG기축 든든전세	
		'24년	'25년	'24년	'25년	'24년	'25년	'24년	'25년
계	12	3.5	4	1	1	0.5	1	0.35	0.65
수도권(서울)	8.75(3.5)	2.5(1)	2.8(1.1)	0.7(0.3)	0.7(0.3)	0.35(0.1)	0.7(0.2)	0.35(0.17)	0.65(0.33)
지방권	3.25	1	1.2	0.3	0.3	0.15	0.3	-	-
매입 주택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전용면적 평균 47㎡)				연립·다세대·오피스텔 (전용면적 60~85㎡)		연립·다세대·오피스텔 (전세피해 집중지역)	
지원 대상		저소득층 (소득 우선순위 有)				무주택자 대상 (신생아·다자녀 가정)		무주택자 추첨 (소득·자산 무관)	

금융 > 부동산시장 안정·선진화를 위해 리츠(REITs) 활성화 추진



#국토교통부

- 국토부는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신규리츠 도입 △리츠 관련 규제 개선 △리츠 투자기회 확대 등의 지원책을 담은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
 - * 리츠(REITs)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 및 관련 자본에 투자해 수익을 배당하는 투자신탁을 의미
 - 앞으로는 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고 리츠의 투자 대상을 헬스케어, 테크자산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속인가 및 지원센터 운영 등 관련 행정을 규제에서 지원 중심으로 완화·전환할 계획
 - △투자보고서 접근성 제고 △지역상생리츠 등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 △배당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민들의 리츠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를 추진
 - 또한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및 CR리츠의 역할 확대를 통해 PF 및 미분양 리스크를 완화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할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난 6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CCU(Carbon Capture & Utilization) 기술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CCU 메가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에 앞서 실증사업 부지 선정 공고를 시작
 - 금번 실증사업 부지 선정 공고는 CCU 메가 프로젝트의 대규모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을 위한 시설 및 설비가 구축될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로, 6월 19일부터 약 1개월에 걸쳐 실증부지 유치계획서를 접수할 계획
 - ‘CCU 메가 프로젝트’란 △연구개발 주체(출연연, 대학 등) △수요기업 △CCU 제품 활용 기업 △감축량 평가·검증 기관 등 온실가스 감축 관련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대규모 실증지원 사업
 - 이산화탄소의 공급부터 제품 활용에 이르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관련 전주기 밸류체인을 구성해 CCU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고, 프로젝트 성공 사례를 민간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
 - 실증사업 부지는 실증부지 유치계획(1단계)과 컨소시엄 구성 및 실증계획(2단계)을 평가하여 선정될 예정으로, 사업공고의 상세 내용은 과기정통부 및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월 25일 “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삼성전자 기술나눔*사업”의 공고를 시작하여 8월 6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할 계획
 - * 기술나눔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2013년 시작
 - 금번 나눔기술은 삼성전자 보유 기술 중 중소·중견기업에 제공될 경우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을 중심으로 231건의 특허 기술이 선정
 - 주요 나눔기술로는 △착용형 로봇 및 제어 △경로추천 방법 및 장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장치 및 방법 등 의료·모바일·디스플레이 분야의 특허 기술이 포함
 - 오는 7월 16일에는 사업 참여 및 나눔 기술에 관심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성전자 기술나눔 현장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기술 나눔 관련 세부 정보와 사업 참여 신청은 테크스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기술 분야	차세대 통신			스마트 홈·헬스케어			계
	모바일기기	통신/네트워크	디스플레이	영상/음향기기	가전	의료기기	
건수 (비중)	102 (44.2%)	22 (9.5%)	49 (21.2%)	29 (12.6%)	21 (9.1%)	8 (3.4%)	231 (100%)

복지**주민번호 없어도 복지급여 수급 가능하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보건복지부

- 지난 6월 25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7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이용 곤란자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가능
 - 법령 개정에 따라 7월 3일부터는 주민번호 이용 곤란자가 13자리의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을 경우,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 주요 주민등록번호 이용 곤란자에는 △출생 미신고 등 주민번호 미부여자 △무연고자로 주민번호 부여 사실 확인불가자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한 보호시설 입사자 △상담을 요청한 위기 임산부 등이 해당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수급받을 수 있는 급여에는 ①기초생활보장급여 ②의료급여 ③긴급복지지원 ④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⑤보육서비스이용권 ⑥유아교육비 ⑦첫만남이용권 ⑧한부모가족지원 ⑨초·중·등교육비지원 ⑩보호출산지원 ⑪보건복지부 협의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된 급여 등이 포함
 - 또한 금번 개정을 통해 위기임산부 지원 업무 수행 기관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복지부는 금번 법령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사회서비스원이란 민간의 사회서비스 제공 기능을 보완·지원하고,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견인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특수법인(지방출연기관)을 의미

교육**EBS,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무료 화상 튜터링' 서비스 운영**

#교육부

-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7월부터 현직 교사 및 대학생이 참여하는 '화상 튜터링' 서비스를 신설·운영
 - '화상 튜터링'이란 학생이 EBS 교재·강좌를 학습하며 발생한 학습 과정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현직 교사 및 대학생과 온라인으로 만나 질문·토론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양방향 개인 맞춤형 교습 서비스
 - 본 서비스는 학생이 사전 진단평가를 통해 자신의 학습 수준에 맞는 EBS 강좌를 추천받아 스스로 학습하고 EBS 온라인클래스 질문노트에 모르는 개념 및 문제를 기록하면, 멘토가 화상 튜터링을 통해 학생의 질의에 응답하고 학습 방법을 조언하는 등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 또한 서비스 이용 학생은 인공지능(AI)을 통해 틀린 문제 및 어려운 개념과 유관 강좌를 추천받는 등 유기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예정으로, 학생당 1회 1시간씩, 주 2회씩 무료로 이용 가능
 - 금번 서비스는 기신청한 1,400여 명의 중·고1 희망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7월 말까지 2,800여 명의 학생을 추가 선발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참여 희망 학생은 '함께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확정함에 따라, 2025년도에는 주요 R&D 분야에 24.8조 원의 예산이 투자될 계획
- 과기정통부의 '25년도 R&D 투자는 △R&D 예타 폐지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 구축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 정부의 R&D 투자시스템 개혁에 발맞춰 선도형 R&D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에 중점

목표	R&D 분야	'25년 예산
국가혁신 견인	• 3대 게임체인저 -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기술의 핵심기술 확보	3.4조 원
	• 혁신도전형 R&D - 고위험-고보상형 R&D 과제 발굴·투자	1.0조 원
선도형 연구생태계	• 글로벌 R&D	2.1조 원
	• 기초연구 - 우수 성과자 후속 연구 지원, 국가 아젠다 및 지역 혁신 연구 지원	2.94조 원
	• 인재 확보	1.0조 원
역동경제 초석	• 첨단기술·초격차 -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차세대통신 분야 초격차 확보	2.4조 원
	• 기술주권 신성장 - 우주탐사·차세대 발사체 핵심역량 확보, 미래 에너지 수요 대응	3.2조 원
국민 안전	• 국방 첨단전력화 - K-9 자주포, 천궁 등 방산 수출 무기체계 경쟁력 제고	3.1조 원
	• 재난·안전 R&D - 디지털 범죄·중대재해 현장 등 대응력 강화를 위한 핵심 분야 투자	2.0조 원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민간 및 정책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수요자에게 금융상품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 있다' 플랫폼의 운영을 6월 30일부터 시작
- '서민금융 있다'는 수요자가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에 대한 조회·선택·보증 발급·대출 시행을 원스탑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대면으로 고용·복지 연계·채무조정 등의 복합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민금융 전용 종합플랫폼
- 동 플랫폼에서는 현재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민간서민금융상품 등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 14개를 포함한 총 72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 연계 상품을 점차 확대할 계획
- 수요자가 '서민금융 있다' 앱에서 보증서를 발급할 경우, 해당 보증서로 대출실행이 가능한 금융회사를 일괄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가 대출가능한 금융회사를 자유롭게 선택·이용 가능
- 한편 기존에 관련 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제공받을 수 있었던 복합상담 서비스 역시 동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맞춤형 연계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으며, 앱 이용자의 대출 상황 상태에 따른 사후관리도 지원할 예정
- '서민금융 있다'는 모바일 구글 플레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서민금융 있다' 앱(APP)을 내려받고 로그인한 다음, 약관·심사정보 수집·서비스 신청 및 이용 등에 동의를 통해 사용 가능

참고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소매판매통계' 및 '시도별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소비자심리지수'.
- KDI, 「경제동향 2024.6」, 2024.06.11.
- 신한카드, '인천지역 업종별 매출데이터'.
- 인천연구원, 「인천 소비업종 동향(매월호)」.
-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통계정보보고서 2021.12」, 2022.03.14.
- 한국은행,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2022.05.13.
-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코로나19 확진자 현황('20.01.20~'23.08.31)'.
- 보건복지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단계적·점진적, 포용적, 국민과 함께하는 일상회복 추진", 2021.10.29.
- 서울연구원, 「서울소비경기지수」, 2024.06.13.
- 한국은행, 「인천지역 역외소비 현황 및 역내소비 활성화 방안」, 2024.01.15.
- 국가통계포털(KOSIS), '국내인구이동통계'.
- 통계청, "신속한 경기 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지표 개발 추진", 2024.05.1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5월 동행축제, 전국 어디서나 즐긴다...50여개 행사와 연계", 중소벤처기업부, 2023.04.2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6월 여행가기 딱 좋다...교통·숙박 할인에 즐길 거리도 풍성", 문화체육관광부, 2023.05.14.
- 경인신문, "'1883인천맥강파티' 외국인 관광객 10,394명 참여, 큰 호응 속 성료", 2024.05.27.
- 인천투데이,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단계 지원... 1575억원 규모", 2024.02.20.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자동차산업 동향(매월호)".
-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별 수출입 통계' 및 '국내 지역별 수출입 통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 공급...수도권 70% 집중", 국토교통부, 2024.06.17.
- 관계부처합동,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 2024.06.1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부동산시장 안정에 리츠 활용...규제 낮춘 '프로젝트 리츠' 도입", 국토교통부, 2024.06.17.
- 관계부처합동,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 2024.06.1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로 '온실가스 감축'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6.1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술도 나눔...삼성전자, 중소·중견기업에 232건 특허 공개", 산업통상자원부, 2024.06.2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주민번호 없어도 복지급여 받는다...'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보건복지부, 2024.06.2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교육비 걱정 ↓...7월 1일부터 '무료 EBS 화상 튜터링' 시작", 교육부, 2024.06.2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년 R&D 24조 8000억원 투입, 역대 최대...'게임체인저' 집중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6.2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서민금융상품,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서민금융 잇다' 출시", 금융위원회, 2024.06.27.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13호(2024.07.05)

발행처 인천연구원
발행일 2024년 07월 05일
주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